

광주시, 신천지 직접 조사 나섰다

대구에배 참석 4명 · 접촉자 198명...CCTV 등 현장 조사

확진환자 늘어날 가능성 대비 의료시스템도 확충키로



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대응현황과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광주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6명이 모두 신천지 신도로 밝혀짐에 따라 광주시는 유형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3일 광주시와 광주 신천지 교회 TF팀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대구 신천지교회에 다녀온 교인은 광주 11명이다.

이 중 A씨(30·126번 환자), B씨(31·164번 환자), C씨(30·210번 환자), D씨(30·239번 환자) 등 4명은 확진환자로 판정됐고 나머지 7명은 음성으로 나타났다.

22일과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E씨(32)와 F씨(31)는 A씨의 지인과 배우자로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아직 환자 번호도

지정되지 않았다.

광주시 역학조사팀은 대구 예배 참석 확진자 4명과 접촉한 시민이 198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천지 측에서는 3차에 걸친 조사 결과 확진환자 4명이 58명과 접촉했고, 청도 대남병원에 다녀온 교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시에 밝혔다.

신천지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광주·전남 신도는 4만9991명이다.

이 중 광주는 오치동과 송하동 2개 교회에 2만6715명, 95개 복음방과 선교센터에 5378명 등 모두 3만2093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천지 측은 17일 광주 2개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전면 중단하고 있다.

시는 신천지가 유관기관대책회의에 참석해 상황 설명을 하고 TF 구성에 합의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신천지 측의 자료만으로는 완벽을 기할 수 없어 직접 조사를 나서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와 광주시 역학조사팀은 이날부터 확진자 A씨가 공부했던 주월동 선교센터를 비롯해 신

천지 관련 시설을 직접 방문해 CCTV 등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지역 2개 대형 신천지교회에서는 17일부터 예배를 중단해 접촉 가능성은 낮다"며 "나머지 95개 복음방과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직접 확인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확진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시스템도 확충키로 했다.

현재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전남 대평원과 조선대병원에 12개가 확보돼 있다. 음압병상은 광주 기독병원, 광주보훈병원 등 7곳에 19병상을 갖추고 있다.

시는 빛고을전남대병원 등 2곳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후부터 병원 내 환자를 다른 곳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접촉자 관리시설도 기존 광주소방학교생활관과 함께 5.18교육관을 추가로 지정해 총 104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민들의 위기극복 능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 역량으로 이번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며 "필요한 예산과 인력, 시스템을 총결집해 코로나 확산을 막아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동구, 남광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우수등급

광주 동구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평가에서 광주의 대표수산물인 남광주시장이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2019년부터 2년간 총사업비 9억2천만 원을 투입해 16개 프로그램을 진행한 남광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이번 우수등급 평가로 사업비 2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남광주시장의 대표상품인 수산물과 국밥의 특성화를 살린 '수(산물)국(밥)만발 프로젝트'를 통해 국밥 스토리텔링, 위생안전 역량강화, 기술수산물 축제 등 활발한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구, 찾아가는 배달강좌 강사모집

광주 서구는 서구민의 평생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2020년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강좌 사업 운영을 위해 배달강좌 강사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직업능력 향상, 문화예술, 인문학, 기초문해와 한글 등 평생교육과 관련한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

신청자격은 해당분야 전문 자격증 소지자, 해당 분야에서 1년이상 강의 경력자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배달강좌 강사 활동기간은 4월~12월이며, 강사료(시간당 3만원, 최대 20시간)를 지원한다.

남구, 방림1동에 15호 공립 작은도서관 건립

광주 남구 방림1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립 15번째 작은도서관이 들어선다.

남구는 21일 "방림1동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확대와 독서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동 행정복지센터 내부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방림1동 관내에 빈약한 교육·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접근성이 높은 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활용해 마을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에서 소통을 하면서 지역 공동체 정신을 드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방림1동 작은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북구, 참여·공감 중심 공직자 청렴의 날 운영

광주 북구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북구는 공직자 청렴 공감대 형성 및 실천 의지 향상을 위해 매월 세 번째 금요일을 '청렴의 날'로 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렴의 날'은 그동안 각각 별도로 추진해왔던 청렴 관련 시책을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청렴의 날 업무 시작 전 청렴을 주제로 직원이 직접 작성한 청렴이야기를 들려주는 청렴방송과 전 직원 대상 청렴 문자메시지 보내기를 운영해 청렴 공감대를 확산한다.

기업 돕는 광산구 대법원 무인민원발급기 인기

광주 광산구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이용건수가 지난해 11월 5일 개통식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산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기업 업무처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18년 8월 기업인 간담회 건의된 법원용 통합무인발급기를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1층 현장민원실에 설치했다.

평일 오전9~오후6시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이 통합무인발급기의 이용 건수는, 개통된 11월 429건에서 12월 438건으로 늘더니, 올해 1월에는 644건으로 전월 대비 47% 증가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입형택 기자

전남도, 농기계보험료 지원...개인부담 50%→20%로 낮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험료 100% 지원



전남도는 올해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보험료를 신규 지원해 농업인 보험 가입 확대에 나섰다.

23일 도에 따르면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

인의 경제적·신체적 손해를 보장한 농업정책보험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만 지원해 가입률이 약 7%로 저조했다.

이에 전남도는 올해 농기계 보험료 중 도비 등 지방비 지원을 신설, 총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50%에서 20%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특히 연중 농기계 사고가 많이 발생한 5월부터 6월 영농철과 가을 수확기 사고 등을 미리 대비키 위해 2월부터 4월까지 집중 가입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트랙터, 콤팩트, 경운기 등 12종을 보유한 농업인이며,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보험 기간은 1년이다.

실제로 트랙터 1대의 총 보험료는 53만 2000원으로, 이 중 20%인 10만6000원만 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100%를 지원해 자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주요 보장은 농기계 사고 발생 시 농기계 수리비, 대인배상 사망 위자료 800만원, 본인 사망 유족 급여금 최대 1억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 도내 5577농가에서 1만1400여대의 농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해 77억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사고 등으로 102억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곽홍섭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기계 종합보험은 지난해까지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커 가입률이 매우 낮았다"며 "가입 대상자는 예상치 못한 농기계 사고 등을 대비해 5월 영농철 이전에 서둘러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서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인문진흥재단
Korea Human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재인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건강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 연도 | 고소득층 | 중위 | 3분위 | 2분위 | 저소득층 | 빈부 |
|-------|----------|----------|---------|---------|---------|----|
| 2016년 | 240,833원 | 125,531원 | 79,147원 | 48,103원 | 26,697원 |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